

스포츠 활동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융합적 연구

안정훈¹, 천항욱^{2*}

¹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²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A Convergence Study of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on School Life Happiness of Multicultural and Korean Adolescents through Sports Activity

Jung-Hun An¹, Hang-Uk Cheon^{2*}

¹Professor, Dept. of Physical Education, Sungkyul University

²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총 4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 활동 경력이 많을수록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하위요인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들로는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협동하기, 도움주기, 감정표현, 위안하기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행복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스포츠 활동, 공감,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행복,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on school life happiness of multicultural and Korean adolescents through sports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otal 461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and not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are as follows.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have higher levels of empathy,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life happiness than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And the more experience involved in sports activities, the higher the level of empathy, the level of pro-social behavior and the level of school life happiness.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life happines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factors affecting school life happiness are statistically influencing factors such as “relationship formation”, “communication”, “cooperation”, “assistance”, “emotional expression”, and “comf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dealing with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through sports activities in the school life happi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adolescents.

Key Words : Sports Activity, Empathy, Prosocial Behavior, School Life Happiness, Multicultural and Korean Family Adolescents

*Corresponding Author : Hang-Uk Cheon (davidcheon@daum.net)

Received October 4,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December 14,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9

1. 서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들어 출산율 2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1.3명으로 초저 출산 국이 되었고[1]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국제결혼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 등[2]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 출산과 외국인 유입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다문화 가정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아질 것인데,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또래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형성되고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며, 학업부진 등의 문제[3]로 이어져 사회 부적응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문화 시대에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현재 의식 상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한국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행복감을 맛보게 하며, 이를 통해 학창시절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교생활행복이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 감을 의미하는 것으로[4]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는 심리적 만족감과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정서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는데[5], 학교 상황에서 교사, 친구, 학습활동 및 환경과 같은 학교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6]. 특히,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7] 학교와 같은 사회 경험에서 친구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친구(동료)를 이해하고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며, 친구의 정서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에 반응하는 것을 공감이라 한다[8].

타인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상황을 공유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 협동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는 행위나 위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감력은 높아질 것인데, 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타인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돕는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이라 한다[9].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거나 이롭게 하는 행동[10]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시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다른 친구나 급우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공감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공감력을 통해 친구나 급우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도우는 친사회적인 행동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지식들을 즐겁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시대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행복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공감은 학교생활적응이나 학교만족, 학교생활행복과 관련이 있고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11-15],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고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6,17]이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은 학교생활 행복과 관련이 있고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양종훈, 이종하[18] 등[19-21]은 보고하고 있으며,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하며,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 활동이란 청소년들이 자유 시간에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22] 일상생활에서 오는 피로나 긴장감, 그리고 지루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며, 스포츠라는 경쟁은 승리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 고통과 곤란을 이겨내면서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의 힘든 훈련을 참아내야 하고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상대와 심판을 존중하고 정당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스포츠맨십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은 상대 선수나 팀과는 경쟁을 통해

겨루고 팀 동료들과는 협동적인 관계와 경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쟁 스포츠는 팀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구성원이 각자의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고 팀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결집하는 것을 중요시하기에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스포츠를 통한 협동과 경쟁을 통해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규칙 준수, 예절, 협동, 경쟁, 스포츠맨십 등의 기본원리를 학습하며, 내면화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 협조, 책임성, 자율성, 성취성, 활동성, 사교성을 발달시키고 사회성 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김문명[23]은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여러 또래들과 함께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친구를 사귀고 회로야락과 같은 감정이나 정서를 공감하며, 상호간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친사회적인 행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가 차이가 있는 한국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학교 환경에서 다문화 학생들과 서로 공감하고 친구나 급우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우는 친사회적인 행동들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행복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의 유형과 수준을 파악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한국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행복 수준 향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018년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발간된 2017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구와 군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고 이 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가정과 다문화가정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 총 58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532부 중, 응답이 적절하지 못한 71부를 제외한 총, 461부의 설문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고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people)	%
Object	middle school	235	51.0
	high school	226	49.0
PSA	participation	215	46.6
	non-participation	246	53.4
total		461	100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N(people)	%
Career	less than 6 months	67	31.2
	6~12 months	68	31.6
	13 months or more	80	37.2
total		215	100

PSA=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2.2 연구도구

2.2.1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이다. 공감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Reniers 등[24]이 개발한 인지-정서공감 척도와 허순향[25]이 개발한 공감능력 척도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박수경, 양심영[26], 황수영, 윤미선[2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근거로 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Eisenberg와 Mussen[28]이 개발한 이타성 자기보고검사 척도를 기초로 송승희, 장경은[29], 조한익, 이미화[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학교생활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백과 김태은[5]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김관문[30], 김숙연[31], 노영주[3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근거로 하여 이 문항들을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2.2.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Cronbach's α 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Table 6 및 Fig. 1과 같다.

Table 2.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Results of Empathy Scale

Item	①	②	③	④	⑤
I am good at leading conversations with new people I want to know.	.917	-.039	-.018	.183	.011
I am good at going to meetings with strangers to start a new relationship.	.878	-.133	.082	.119	.087
I am good at asking or suggesting new people to get together or do something together.	.822	-.122	.029	.156	.107
I am good at introducing myself to anyone I want to know.	.790	-.066	-.141	.052	.259
I try to think about what I would do if I were in their shoes before criticizing others.	-.107	.842	.343	.041	-.135
I try to take everyone's stance against my decision before making any decision.	-.167	.836	.347	.071	-.030
When I am angry with someone, I usually try to understand their position even for a moment.	-.217	.826	.336	.057	-.023
I'm good at accepting that when I'm angry with a friend, I don't agree that he has a valid point of view.	.024	.817	.130	.201	.117
I ofte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about my feelings.	-.091	.218	.889	.145	.056
I often talk to my family and friends about the pleasant things that happened that day.	-.110	.221	.885	.058	.043
My friends and I often talk about each other's personal affairs.	-.021	.449	.786	.049	.042
I talk with my friends very openly.	.242	.251	.727	-.011	-.040
I am good at saying "No" when an acquaintance asks you to do something you don't want to do.	.172	.088	.107	.931	.105
I am good at rejecting my friend's unreasonable request.	.226	.045	.027	.919	.037
I can definitely say no to a friend when he asks me to do a sport I don't want.	.086	.199	.071	.871	.190
When I see a good movie, I can easily put myself in the lead role.	.126	.043	.053	.045	.918
Reading an interesting story or novel, I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to have an event in the story happen to me.	.029	.026	-.055	.079	.885
I feel as if I were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play or movie.	.300	-.123	.102	.225	.752
Eigenvalue	5.371	4.471	1.887	1.816	1.152
Cumulative%	29.839	54.677	65.158	75.249	81.650
KMO	.804				
Bartlett	$\chi^2=1913.324$, $df=153$, $p=.000$				
If Item Deleted α	.875	.853	.845	.880	.856
Cronbach's α	.887				

① Relationship formation ② View reception ③ Communication ④ Perspective expression ⑤ Insensitivity

Table 3.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Results of Prosocial Behavior Scale

Item	①	②	③
I think I can help a friend who asks for help.	.893	-.019	.164
If my friend asks me to help him with his homework or study, I think I can help him.	.881	.043	.023
I think I can help my friends who are in trouble.	.842	.154	-.032
I think I can help a friend who is sick or hurt.	.818	-.038	.149
I think I can lend my supplies or share them with a friend who hasn't brought them.	.781	.123	.207
If my friend gets a compliment or a prize, I think I can really congratulate her.	-.035	.840	.023
I think I can think and act in other people's shoes.	.179	.823	-.066
I think I can comfort my friend when he is in trouble.	.111	.812	.226
If I have an angry friend, I think I can talk to him and help him out.	-.200	.754	.138
I could comfort myself when I see a friend who is feeling hurt or crying.	.331	.615	.222
I think I can act and think that the interests of my class or all of my school are more important than my personal interests.	.163	.057	.839
I think I can do volunteer work for school or class with my friends.	-.058	.167	.835
I think it's difficult to get along with my friends.	.077	.109	.824
I think I can work with my friends to get together.	.254	.066	.742
Eigenvalue	4.718	2.916	2.149
Cumulative%	33.702	54.528	69.878
KMO	.798		
Bartlett	$\chi^2=1058.703$, $df=91$, $p=.000$		
If Item Deleted α	.864	.786	.858
Cronbach's α	.884		

① help ② comfort ③ working together

Table 4.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Results of School Happiness Scale

Item	①	②	③	④
I enjoy playing with my friends or eating at school.	.932	.201	-.030	.106
I enjoy my school life because I can have a close conversation with my friends.	.913	.100	.060	.075
I don't have very good friends at school, so my school life is not fun. ①	.892	.021	.229	.003
I am glad to have a friend who I like at school.	.747	.249	.216	.081
I am glad to have a teacher who I like at school.	.078	.844	.134	.205
It is good to have a teacher who knows me well and treats me warmly.	.217	.796	.072	.026
I enjoy talking with my homeroom teacher.	.101	.729	.173	.123
Item	①	②	③	④
I am grateful to Mr. Lim for his care.	.158	.673	.310	.302
I enjoy my school life because of my favorite subjects.	.004	.064	.797	.303
I enjoy learning activities because what I learned through class will be helpful in real life in the future.	.228	.115	.781	.270
I feel happy that I know a lot through school work.	.077	.482	.741	-.020
It is fun to find new facts in different subjects in class.	.353	.349	.613	.189
I am satisfied that I finish my homework or work well at the appointed time.	.083	.178	.242	.849
I am proud of myself trying to implement my study plan.	.047	.237	.145	.842
I'm satisfied with my way of thinking and being careful when I say or do something.	.073	.056	.140	.720
Eigenvalue	5.947	2.413	1.519	1.210
Cumulative%	39.646	55.733	65.862	73.930
KMO	.809			
Bartlett	$\chi^2=1248.287$, $df=105$, $p=.000$			
If Item Deleted α	.901	.866	.859	.869
Cronbach's α	.909			

① Friendship ② Teacher relationship ③ pleasure in learning ④ Self-efficacy

Table 5. Goodness-of-fit indices

index	$\chi^2(df)/p$	$Q=\chi^2/df$	GFI	AGFI	RMSEA	NNFI
model	90.336 (32)/.063	2.823	.923	.906	.075	.917
suitable criteria	$p>.05$	≤ 3.0	$\geq .90$	$\geq .90$	$\leq .08$	$\geq .90$
result	suitable	suitable	suitable	suitable	suitable	suitable

Table 6. Parameter estimates

			Estimate	S.E.	C.R.	P
Emp5	<---	Emp	.869	.096	9.028	***
Emp4	<---	Emp	.938	.088	10.670	***
Emp3	<---	Emp	1.000			
Emp2	<---	Emp	.974	.092	10.625	***
Emp1	<---	Emp	.966	.091	10.570	***
PB3	<---	PB	.797	.073	10.893	***
PB2	<---	PB	1.000			
PB1	<---	PB	.949	.068	13.985	***
SH4	<---	SH	.799	.106	7.517	***
SH3	<---	SH	.808	.095	8.511	***
SH2	<---	SH	1.000			
SH1	<---	SH	.938	.106	8.845	***

Emp=Empathy, PB=Prosocial Behavior, SH=School Happ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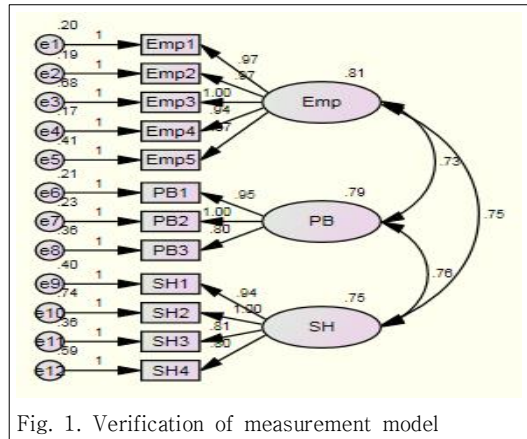


Fig. 1. Verification of measurement model

Table 2, 3, 4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척도의 표본 적합도와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들에 있어서 적절한 신뢰계수를 보이고 있어 설문지는 본 연구에 적합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고, Table 5에 따른 측

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잠재변인의 각 측정변인들이 적합하게 조직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자료처리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SPSS/PC⁺ v21.0과 AMOS v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변인별 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SNK) 그리고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스포츠 활동 참여 유무별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수준 차이

스포츠 활동 참여 유무별에 따른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하위요인 차이 검증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Table 7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여 유무별 공감 수준의 경우, 감정표현과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요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위안하기와 협동하기요인이 그리고 학교 행복에 있어서는 친구관계와 자기효능감요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스포츠 활동 참여 경력별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수준 차이

스포츠 활동 참여 경력별에 따른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하위요인 차이 검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따른 스포츠 활동 경력별 공감 수준의 경우, 감정표현과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요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위안하기와 협동하기가 그리고 학교 행복에 있어서는 친구관계와 자기효능감 요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 경력이 높을수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ifferences i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happiness by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variables		participation (215 people)		non-participation (246 people)		t	p
		M	SD	M	SD		
empathy	View reception	2.79	1.24	2.66	1.35	.614	.309
	Perspective expression	3.72	1.12	3.34	1.39	3.205 ^{***}	.001
	Insensitivity	2.55	1.12	2.43	1.19	1.098	.273
	Relationship formation	3.89	1.12	3.13	1.53	5.942 ^{***}	.000
	Communication	3.89	1.07	3.30	1.54	4.672 ^{***}	.000
prosocial behavior	help	2.90	1.17	2.74	1.27	1.345	.179
	comfort	3.27	1.21	2.95	1.46	2.564 [*]	.011
	working together	3.09	1.25	2.75	.86	3.342 ^{**}	.001
school happiness	Friendship	3.77	1.12	3.20	1.43	4.698 ^{***}	.000
	Teacher relationship	2.33	1.29	2.21	1.19	.984	.325
	Self-efficacy	2.17	1.21	1.95	1.04	2.085 [*]	.038
	pleasure in learning	3.77	1.14	3.56	1.33	1.775	.077

^{***}=p<.001, ^{**}=p<.05

Table 8. Difference in level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happiness by experience in sports activities

variables		① (67 people)		② (68 people)		③ (80 people)		F	SNK
		M	SD	M	SD	M	SD		
empathy	View reception	1.85	1.15	1.94	.96	2.03	1.10	.548	•
	Perspective expression	3.48	1.20	3.77	1.17	4.01	1.01	4.017*	①<②<③
	Insensitivity	2.79	1.11	3.05	1.32	3.26	1.19	2.739	•
	Relationship formation	1.59	.85	1.95	1.00	2.48	1.13	13.355***	①<②<③
	Communication	1.61	.98	1.90	.92	2.35	1.11	9.331***	①<②<③
prosocial behavior	help	1.49	.70	1.70	.57	1.77	.82	2.995	•
	comfort	1.91	1.12	2.31	1.22	2.41	1.17	3.450*	①<②<③
	working together	3.70	1.15	3.76	1.12	4.16	.92	4.161*	①②<③
school happiness	Friendship	2.97	1.30	3.22	1.09	3.58	1.17	5.013**	①<②<③
	Teacher relationship	2.61	1.28	2.83	1.37	2.90	1.09	1.004	•
	Self-efficacy	2.65	1.33	2.94	1.15	3.17	1.30	3.032*	①<②<③
	pleasure in learning	1.94	1.09	2.26	.85	2.31	1.16	2.577	•

***p<.001, **p<.01, *p<.05, ① less than 6 months, ② 6~12 months, ③ 13 months or more

3.3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간의 관계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happi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②	.562**										
③	.534**	.481**									
④	.500**	.525**	.565**								
⑤	.389**	.352**	.366**	.518**							
⑥	.260**	.309**	.467**	.556**	.399**						
⑦	.243**	.307**	.326**	.250**	.252**	.347**					
⑧	.483**	.538**	.574**	.856**	.538**	.488**	.185**				
⑨	.567**	.559**	.548**	.587**	.438**	.363**	.353**	.545**			
⑩	.339**	.553**	.440**	.485**	.380**	.279**	.311**	.410**	.555**		
⑪	.291**	.378**	.349**	.239**	.134**	.442**	.359**	.176**	.382**	.482**	
⑫	.453**	.558**	.479**	.485**	.448**	.295**	.394**	.441**	.576**	.742**	.383**

①View reception ②perspective expression ③insensitivity ④relationship formation ⑤communication ⑥help ⑦comfort ⑧working together ⑨friendship ⑩teacher relationship ⑪Self-efficacy ⑫pleasure in learning

Tabl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행복 하위요인들에 대하여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10, 11, 12, 13과 같다.

Table 10. Effec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on friendship

order of input	B	β	t	p
1 relationship formation	.239	.263	4.139	.000
2 communication	.227	.218	3.428	.001
3 working together	.203	.186	2.929	.004
4 perspective expression	.129	.127	2.440	.016
5 comfort	.158	.153	2.375	.018
R Square .499				
removed variable	entry-β	t	p	
1 insensitivity	.092	1.587	.114	
2 help	.021	.342	.733	
3 view reception	.014	.141	.888	

Table 10, 11, 12, 13에 따른 친구관계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들로서는 관계형성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협동하기, 감정표현과 위안하기 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관

Table 11. Effects of compassion and prosocial behavior on teacher relations

order of input		B	β	t	p
1	relationship formation	.498	.381	5.817	.000
2	communication	.275	.252	3.913	.000
3	working together	.159	.131	2.270	.024
R Square .365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1	perspective expression	.116	1.809	.072	
2	help	.117	1.693	.092	
3	comfort	.138	1.280	.202	
4	insensitivity	.052	.759	.448	
5	View reception	.038	.555	.579	

Table 12. Effects of compassion and prosocial behavior on self-efficacy

order of input		B	β	t	p
1	relationship formation	.477	.388	5.291	.000
2	communication	.352	.344	5.079	.000
3	working together	.306	.262	3.616	.000
4	help	.238	.231	3.001	.003
5	perspective expression	.261	.224	2.942	.004
6	comfort	.176	.154	2.509	.013
R Square .350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1	insensitivity	.053	.773	.441	
2	view reception	.033	.290	.772	

Table 13. Effects of compassion and proxocial behavior on pleasure in learning

order of input		B	β	t	p
1	relationship formation	.441	.342	5.623	.000
2	communication	.270	.218	3.822	.000
3	perspective expression	.212	.177	3.170	.002
4	help	.217	.177	2.881	.004
R Square .433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1	working together	.092	1.294	.197	
2	comfort	.060	.974	.331	
3	insensitivity	.066	.968	.334	
4	view reception	.011	.145	.885	

계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형성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과 협동하거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관계형성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협동하기, 도움주기, 감정표현과 위안하거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활동 즐거움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들로서는 관계형성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감정표현과 도움주거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이 연구는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들은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할수록 또한 참여 경력이 길수록 관계형성과 감정표현 및 의사소통과 같은 공감능력과 위안하기,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 및 친구관계와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활동은 건강한 신체나 정신을 만들어 내며[33], 청소년들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배려, 인성 함양,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돕고 자신감을 배양시켜 리더십을 함양시키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회성의 발달을 높여준다고 보고한 차은주, 김영재, 허정훈[3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활동은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으며[36], 운동에의 참여 빈도와 참여시간 및 참여기간이 길수록 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37] 스포츠 활동 참가 경력이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8],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의 만족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황민우, 도재현[3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집단에 속해서 서로들 사이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친밀하게 되며, 같은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 부딪치며,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동하며, 승리했을 때의 기쁨과 패배했을 때의 슬픔이나 스포츠 기술이 향상되었을 때의 즐거움 등과 같이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40] 친밀한 관계가 발전하여 나의 감정과 관련되는 깊은 이야기들도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게 되며, 좋은 것과 싫은 것, 합리적인 요청이나 비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높아졌기에 관계형성이나 의사소통, 감정표현과 같은 공감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함께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상된 공감수준을 바탕으로 친구나 동료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 친구나 동료의 입장에서 기분을 풀어주고 친구나 동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며, 나의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속해있는 집단을 위해 생각하고 협력을 통해 봉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안하거나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 활동을 통해 향상된 공감수준과 친사회적 행동 수준을 통해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고 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와 같이 놀거나 생활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거나 행복하며, 학교생활에서 주어진 과제나 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옳게 노력하고 잘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인 친구관계행복이나 자기효능감행복과 같은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팀 정신 및 규칙과 규율을 배우기 위해 자기 책임감, 자기 통제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김문명[23]이 보고하였듯이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운동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배려를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회성의 발달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과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은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은 관계형성요인이며, 의사소통과 협동하기, 감정표현, 위안하기, 도움주기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김영희, 고태순[14] 등[18,19,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고 공감은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협동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41] 공감능력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기술을 증가시키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감이 행복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14,42]이며,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조한익, 이미화[15]의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종훈과 이종하[18]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학습활동, 교사관계, 친구관계, 규칙준수)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며, 학교생활행복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의 즐거움,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신성철[20] 등[21,19]의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문화와 한국 가정 청소년들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능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 이해, 평등, 교류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을 배움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43]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와 한

국 가정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감 수준을 높이고 서로 돕는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행복감을 경험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올바르게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감정표현과 관계형성, 의사소통과 같은 공감능력과 위안하기와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 친구관계와 자기효능감 같은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력이 많을수록 감정표현과 관계형성, 의사소통과 같은 공감능력과 위안하기와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 친구관계와 자기효능감 같은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들로는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협동하기, 도움주기, 감정표현, 위안하기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스포츠 활동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공감 수준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은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문화시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이 다양하고 스포츠 종목별에 따른 독특한 특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 유형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수준을 스포츠 활동 환경 하에서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8). [http://kostat.go.kr /portal/korea/index.action](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http://www.korea.kr/main.do>.
- [3] S. M. Yang. (2014). The Effect of the Family Volunteering Activity o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10(3), 155-178.
- [4] C. S. Lee, J. Y. Park & H. Y. Jang.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35-43.
- [5] J. B. Kim & T. E. Kim.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1), 259-279.
- [6] G. Y. Pi. (2012).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Physical Self-concept Psychological Happiness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mong Youth Participating in School Sports Activities*, Doctoral Degree, Cho Sun University.
- [7] Y. K. Hwang & E. Y. Hong. (2018). The Current Status of Life and Happiness of Out of School You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57-64.
- [8] S. H. Park & J. H. Yoo. (2017).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99-510.
- [9] M. S. Ko & E. C. Kwak. (2015). Relationship between Sex, Sport Character,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experienced School Sport Club, *The Korean Society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1(3), 17-33.
- [10] J. U. Lee. (2016).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Youth's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Focusing on the School Domain Predictor Variables*, Doctoral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 [11] E. K. Bae. (2015). The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3(1), 85-100.
- [12] S. H. Jang, H. S. Yoon, S. J. Kim & Y. J. Park. (2010). Learning Motivation, Social Skills and Academic Self-Efficacy Scale as Predictor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2), 140-157.
- [13] Y. S. Kang & K. Park.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on empathy in middle school student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Studies on Korean Youth*, 25(2), 5-45.

- [14] Y. H. Kim & T. S. Ko. (2014). Relationships among Hope, Empathy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10), 330-338.
- [15] H. I. Cho & M. H. Lee. (2010).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tudies on Korean Youth*, 17(11), 139-158.
- [16] J. Y. Lee, I. J. Jung & J. L. Back. (2014).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or Variables of the School Adjustment of You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2), 1226-1688.
- [17] H. J. Cho & N. H. Sohn. (2006).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 1-9.
- [18] J. H. Yang & J. H. Lee. (2010).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School Life 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9, 343-350.
- [19] E. Y. Lee & K. H. Kim.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1), 105-119.
- [20] S. C. Shin. (2015).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elf-worth and resilience with respect to effects of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on school life adjus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4(2), 266-280.
- [21] J. S. Do. (2011). The Effects of Youth Voluntary Service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1-45.
- [22] Y. O. Park & H. M. H. (2008). An Analysis on Monetary Value of Physical, Mental Health Effect and Psychological Happiness Followed by Participation Variables of Sports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1(2), 443-461.
- [23] M. M. Kim.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School Sports Club Activities on the Students' Physical Fitness, Physical Self-description and Attitude toward PE*, Doctoral Degr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24] R. L. Reniers, R. Corcoran, R. Drake, N. M. Shryane & B. A. Völlm. (2011). The QCAE: A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1), 84-95.
- [25] S. H. Hur. (2017). *Development of Scale and Program for Empathy Capability*, Doctoral Degree, Daejeon University.
- [26] S. K. Park & S. Y. Yang. (2017).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as a Mediator,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6), 142-152.
- [27] S. Y. Hwang & M. S. Yoon. (2018).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mpathy,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happines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4(1), 173-197.
- [28] N. Eisenberg & P. H. Mussen.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9] S. H. Song & K. H. Jang.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s Affective Empathy, a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6(3), 59-75.
- [30] K. H. Kim. (2015).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and School Happiness of School Sports Club Participants*, Doctoral Degree, Sungkyunkwan University.
- [31] S. Y. Kim. (2013). *The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Happiness*, Doctoral Degree, Dong-A University.
- [32] Y. J. Noh. (2017). *The Relations between the Determina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Feeling of School Happiness*, Doctoral Degree, Gachon University.
- [33] C. K. Ha & K. H. Lee. (2002). Differences in Physical Self-Description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Patter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13(3), 185-202.
- [34] E. J. Cha, Y. J. Kim & J. H. Huh. (2013).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Evaluation Questionnaire for School Sport Participation Adolescent,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2(2), 361-373.
- [35] S. J. Park, Y. J. Kim & E. J. Cha. (2015).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 and Empathy of Middle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School Sports Club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2(3), 135-152.
- [37] S. J. Han.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Type & Degree of an Adolescent's Recreational Activity on Emotional Empathy and Sociality Development*, Doctoral Degree, Jeon Ju University.
- [38] S. S. Shin & J. Kim. (2017). An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Empathy of Participants in High School Sports Club on Resilience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2(1), 95-110.

- [39] M. W. Hwang & J. H. Do. (2014). The relationship to study of Middle School Sports Club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Pro-social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3(5), 45-54.
- [40] S. T.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y with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0(6), 281-290.
- [41] S. A. Seo. (2007).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leadership life skil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egree,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 [42] C. J. Lee & J. H. Huh. (2010). The Effects of Empathy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29(5), 332-338.
- [43] S. W. Chung. (2014). *Affecting Factor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s*, Doctoral Degree, Gong Ju University.

안 정 훈(An, Jung Hun)

[정회원]



- 1982년 2월 :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사)
- 1984년 2월 : 단국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육상
- E-Mail : an7144@sungkyul.ac.kr

천 항 옥(Cheon, Hang Uk)

[정회원]



- 1999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 학교체육, 학생선수
- E-Mail : davidcheon@daum.net